

■ 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접수 폭력 사례

‘아동학대’ 대부분이 친부모

정신지체장애 부모와 함께 사는 초등학교 6학년 김모(11·광주시 광산구)양은 집에 있는 시간이 지

을 50건 중 36건... 고소·고발 없어 이웃들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예방

기간 46건에 비해 8%, 2005년 31건 보다는 32%나 늘었다. 가해자는 친부모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계모 5건, 동거인 1명 등으로 조사됐다.

고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 박수봉 교육·홍보팀장은 “아이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가



26일 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 2층 상담실에서 사회복지사가 아동 학대 피해 학생과 상담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 친권은?

가해자 권리주장 가능... 피해여성 거부땀 법원서 결정

60대 남자가 성폭행한 여성이 낳은 아이에 대한 친권을 주장, 귀추가 주목된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20대 정신지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6일 경찰에 불발한 A(66)씨, 그는 지난 2004년 1월 광주 모 아파트 2층 자신의 집에서

바로 위층에 사는 B(여·25)씨를 성폭행했다. 가족 없이 홀로 지내 온 그는 B씨에게 ‘내 아기를 낳아 달라’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월까지 3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임신을 했고, 지난 20일 남

자아이를 출산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B씨의 아버지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아버지는 또 딸이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다고 판단, 입양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합의

를 강하게 부인하는 한편 B씨의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며 친권을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친권 행사는 가능한 것일까? 전문가들은 성폭행과 친권행사는 별개의 만큼, A씨의 친권행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A씨와 B씨측이 합의하면 A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B씨 측이 거부하면 A씨는 법원에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 제기,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법원에 친권자지정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친권자가 정해진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입벌린 맨홀 아찔한 밤길

광주·담양서 뚜껑 수십개 도난... 주민 불안

김모(56·담양군 수북면)씨는 지난 12일 새벽 눈에 나갔다가 하마터면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를 당할 뻔했다. 담양군 수북면 대흥리와 대전면 평장리 일대 배수로의 철제 맨홀 뚜껑 76개(310만원 상당)가 밤사이 사라진 때문에 생긴 일이다.

배수로 맨홀 뚜껑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광주 시내 고물상의 고철 값은 1kg당 200~300원, 스테인리스는 2천500~3천 원, 황동은 3천~5천 원 정도다. 고철은 지난해 말에 비해 20~50원, 스테인리스는 1천 원, 황동은 500~1천500원이 각각 올랐다.

담양군은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맨홀 뚜껑에 용접까지 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맨홀 뚜껑 절도는 인근 광주시 북구 용전동·생룡동 등에서도 잇따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맨홀 뚜껑 절도를 막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범행 장소가 인적이 드문 농로인데다 2~3명이 승합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순식간에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 맨홀 뚜껑을 용접한다는 계획을 세우고는 있으나, 해머 등으로 총격을 가하면 쉽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맨홀 뚜껑은 고물상에 넘어감과 동시에 대부분 파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양에서 도난당한 맨홀 뚜껑은 가로 60cm·세로 50cm, 광주에서 지난 18일에 사라진 농수로 덮개용 12개는 가로 120cm·세로 80cm 크기다. 이들 뚜껑이 사라진 맨홀에 빠지면 1~1.5m 아래로 대충 떨어질 수 있다

광주 북부경찰 관계자는 “밤중에 맨홀에 빠지는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돼 농촌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맨홀 뚜껑이 자주 사라지는 것은 고철 값이 급등하면서, 이를 노린 도둑들이 인적이 드문 농촌 지역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병역특례 비리’ 유명가수 줄줄이 소환

병역특례업체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연예인과 사회지도층 인사 자체 등 일부가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잡고 수사를 펴고 있다.

검찰은 K씨에 대해 병역특례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정황이 있는지, 근무 중에 특혜를 받은 적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서울병무청이 관할하는 병역특례업체 60곳을 무더기 압수수색한 검찰은 26일 비리 혐의가 짙은 6개 업체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K씨와 같은 그룹에서 활동한 다른 멤버 L씨도 불러 조사를 벌였으며 이날 모 축구팀 선수 몇 명도 함께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병역특례업체에서 산 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인 유명 남성 그룹 출신 솔로 가수 K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K씨에 대해 병역특례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금품을 건넨 정황이 있는지, 근무 중에 특혜를 받은 적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남뉴스

니원침 (7114) 김장두



Advertisement for KCC construction materials, including DS 건설(주) and (주)본드나라.

다방 여중업원 막적이고 금품 훔쳐... 광주 광산경찰은 26일 차 배를 타고 다방 여중을 만난 다방 여중업원에 대해 8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밤 9시30분경 광산구 송정동 O모텔에 투숙해 커피를 배달 나온 다방 종업원 명모(24)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요압 4달을 먹여 잠들게 한 뒤 휴대전화기와 현금 등 8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자

Large advertisement for Joy Travel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to Japan, China, and Europe, including cruise ferries and group tours.